

■ 공원 탐방

③ 중외공원 문화벨트 거닐기

중외공원 내 운암저수지 전경. 수중분수까지 설치돼 있으며, 주변에 체육시설, 산책길, 국공장 등이 갖춰져 있으나, 찾은 이의 발길은 뜸하다. 시민들이 녹지와 호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164번지 일원의 중외공원은 광주에서 중앙공원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근린공원이다. 면적만도 무려 243만9천130.6㎡에 이르며, 박물관지구(120만9천968㎡), 어린이대공원(37만9천583㎡), 비엔날레지구(10만8천971㎡), 연제·동운지구(74만608.6㎡) 등 크게 4곳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난 1975년 당시 서구 중외동 일대 205만5천700㎡의 면적으로 신설된 이 공원은 광주시의 관문인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의 도시미관을 위해 공원으로 조성됐다. 이후 1985년 북구 봉운동, 본촌동, 서산동 일대 234만8천㎡로 면적이 넓어지고, 어린이대공원,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 등이 들어서면서 문화공간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저수지와 녹지는 물론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중외공원을 찾았다.



■ 도시제안

공공공간은 사적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개인이 아니라 모두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도로나 공원, 공공도서관 등 공공의 재원을 통해 설립된 공공시설, 가로등이나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등이 대표적인 공공공간의 범주에 속한다. 최근에는 공공공간이지만 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반대로 사적공간이지만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반공공공간과 반사적공간이 추가되고 있다. 반공공공간은 옥외광고물, 반사적공간은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화단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각 도시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센티브 부여나 규제 등을 통해 통일성과 조화성을 도모하거나,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민들이 재활용품 수거 등에 공동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은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적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공공간, 반공공공간, 반사적공간을 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할 수는 없다. 물론 일부 공공시설의 경우 시민단체나 민간 법인 등이 공모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운영주체가

공공공간 관리·운영

주민·이용자 중심돼야



쓰레기더미가 방치돼 있는 사적공원 팔각정.

소통 통로 넓혀 차량 중심서 사람 중심으로



운암저수지 앞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에서 선전한 이 지역 메달리스트들을 기념해 건립한 탑. 주변은 잡초로 우거져있다.

중외공원은 어린이대공원뿐 아니라 박물관지구, 비엔날레지구, 연제·동운지구 등이 집적돼 있으며, 사실상 '문화특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은 물론 운동시설, 광장 등이 모두 도보로 10~20분 거리 안에 있다. 거기에 운암저수지와 용봉저수지 등 2개의 큰 저수지까지 갖추고 있어 '여가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펼친 운암저수지 인근 잡초만

이 중외공원에는 또 다양한 상징물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 특히 제1회 광주비엔날레 당시 운암저수지에서 고속도로 진입로를 가로질러 어린이공원, 비엔날레전시관 등으로 이어지는 무지개다리, 김영중씨의 작품으로 광주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다리를 기준으로 중외공원은 둘로 나뉜다. 운암저수지 인근에는 유독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눈에 띈다. 당시 금메달을 딴 광주직할시청 핸드볼팀 성경화·이미영씨, 은메달리스트인 레슬링 김성민씨 등의 업적을 기록하는 탑이 건립돼 있으나, 주변에는 잡초로 우거져 있다. 상대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비엔날레전시관이 위치한 반대편에 비해 찾은 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운암저수지에는 직경 30m, 높이 40m에 이르는 분수가 설치돼 있

나, 평상시에는 가동이 안 되고 있으며, 간혹 주변 산책로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눈에 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생활체육시설도, 바로 뒤의 국공장에도 2~3명이 찾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찾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중외공원 자체가 광주시의 관문인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의 도시미관을 위해 공원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아닌 차량을 중심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배치돼 있는데다, 주변 주택지역과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도 부족하다.

이곳을 간혹 찾는다든 정강자(55)씨는 "도심권과 떨어져 있어 자가용을 타고 와야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고, 비엔날레전시관 쪽에서 넘어와도 특별히 즐길 거리가 없다"며 "문화벨트에 해당되는 반대편을 찾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꾸미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최근 이 같은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그동안 고속도로에 가로막혀 이동이 어려웠던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 중외공원 문화벨트에 '문화의 길(가칭)'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단계로 국비 51억 원 등 102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10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비엔날레주차장~시립민속박물관~비엔날레전시관 구간 600여 m를 개설하고, 비엔날레주차장 앞 대화로와 시립미

술관 앞 호남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보행자 육교 설치도 추진한다. 또 2단계로 2011~2012년 시립미술관~문화예술회관 600여m 구간의 보행로가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해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검토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할 방침이며, 민자를 유치해 무궤도 열차를 운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화의 길 만들고 보행 육교 설치

이러한 계획과 기존 문화시설과의 정합성 추구,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로라는 기존 환경과의 마찰 최소화,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적인 시설 설치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또 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력을 쏟아붓기보다는 이 지역을 관리·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도 치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공원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한 유흥시설, 광장 등이 잇따라 조성되고 있으나, 예산이나 행정력의 투입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시설 설치 이전에 인근 주민이나 해당 분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 기구를 구성해 운영·관리를 위탁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되기는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의 운영 예산지원이나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예산의 지원이 안 되거나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는 경우 운영·관리의 몫은 고스란히 광주시나 각 자치구, 혹은 그 외 행정기관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공공간과 반공공공간, 반사적공간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게 된다. 행·재정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들 공간이 더럽혀지거나 방치될 경우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행정기관은 이들 공공공간이나 반공공공간, 반사적공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가이드라인 하에 관리나 운영을 인건 주민, 주요 이용자, 전문가, 해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기구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으로 정하고, 인센티브 형태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주민 주체의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인근 주민이나 이용자들이 단순히 이들 공공공간의 수혜자만이 아닌 '책임지는 주체'도 돼야 하며, 행정기관도 일정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공공공간과 반공공공간, 반사적공간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러한 협정의 목적인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lecture by Samjung Kwon. Title: '기축년 마지막 강연회 • 운명을 바꾸는 인생이란?' (The last lecture of the year • What is life that changes fate?). Subtitle: '삼중큰스님 복받는 특별강연회' (Special lecture by Samjung Kwon to receive blessings). Text: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소원성취 하는가?' (For those who want to fulfill their wishes, what prayer and how to fulfill wishes?). Includes a list of topics and a contact table.